

정상 및 비만군에서 혈 중 CRP치와 대사증후군의 상관성

이흥철, 김종근, 서영성, 김대현, 신동학

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

연구배경: CRP는 염증상태와 치료반응을 나타내는 표지자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데, 심혈관질환 및 제 2형 당뇨병과 동맥경화증등의 발병에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. 대사증후군은 고중성지방혈증, 고혈압, 당대사이상 및 비만과 같은 관상동맥위험인자가 함께 나타나는 증후군이다. 본 연구는 대사증후군과 혈중 CRP치와의 상관성을 알아 보고자한다.

방법: 대구 동산의료원 가정의학과를 방문한 137명을 대상으로 연령, 성별, 혈압, 허리둘레, 혈중 중성지방, HDL 콜레스테롤, 공복혈당, High sensitive CRP 등을 측정하였다.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은 제3차 콜레스테롤 관리지침(NCEP-ATP III)의 진단기준을 따랐다.

결과: 1. 연구 대상자는 모두 137명이었고 그중 남자가 18명(13.1%), 여자가 119명(86.9%)이었다. 평균연령은 45.5세였고, 남자는 39세, 여자는 46.45세였다. 유병율은 전체(29.9%), 남자(38.9%), 여자(28.6%)로 남자에서 높게 나타났다. 2. CRP 평균치는 $0.16 \pm 0.26 \mu\text{g/mL}$, 허리둘레는 $90 \pm 13.6\text{cm}$, 중성지방은 $153.62 \pm 100.62 \text{ mg/dL}$, HDL콜레스테롤은 $51.74 \pm 13.81 \text{ mg/dL}$, 혈당은 $91.03 \pm 29.96 \text{ mg/dL}$, 수축기혈압은 $129.43 \pm 18.50\text{mmHg}$, 이완기혈압은 $79.91 \pm 13.22 \text{ mmHg}$ 이었다. 3. CRP값과 각 요인을 상관 분석한 결과 허리둘레($r=0.557$), 중성지방($r=0.296$), HDL콜레스테롤($r=-0.335$), 이완기혈압($r=0.256$), 공복혈당($r=0.305$)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, 수축기혈압($\text{significance}=0.086$)은 상관관계가 없었다. 4. 대사증후군에서의 CRP 평균치는 0.234였고, 대사증후군이 아닌 군에서의 CRP 평균치는 0.125로 대사증후군에서 CRP치가 더 높게 나타났다.

결론: 복부비만, 혈중 중성지방치, 이완기 혈압이나 공복 혈당치가 증가할수록 혈중 CRP치가 증가하였고, HDL 콜레스테롤치가 감소할수록 혈중 CRP치가 증가하였다. 또한 대사증후군에서 혈중 CRP 평균치가 더 높은 것으로 봐서 지속적인 염증반응이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. 이러한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고중성지방혈증, 고혈압, 당대사이상, 비만 등의 요인들을 교정하여 대사증후군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또한 대사증후군에서 혈중 CRP 평균치가 더 높은 것으로 봐서 지속적인 염증반응이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. 이러한 관상동맥질환의 위의 요인들을 교정하여 대사증후군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중심단어: CRP, 대사증후군